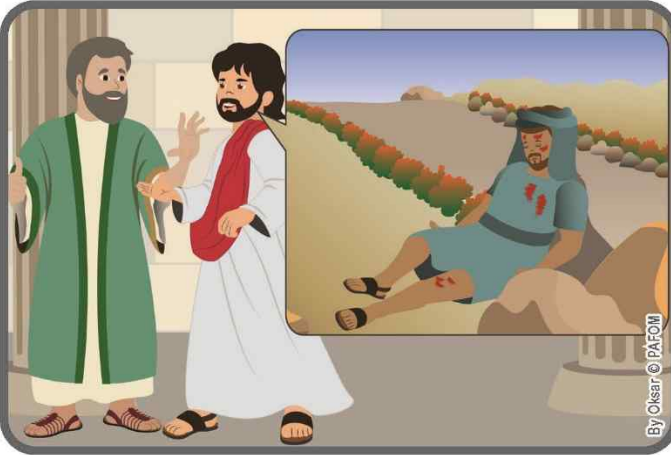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2024년 1월 -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주제로 선정)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리코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마구 마구 때려서 쓰러트리게 하고 가 버렸어요.



마침 어떤 사제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 인이 그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내 놓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는 “상처를 치료해 준 세번째 사람이요.”라고 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대답하였다. 가서 너도 모든 이웃들과 그렇게 하여라.”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는데, 거기에는 과일과 채소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토마토가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저만치 앞에 한 아저씨가 무거운 큰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계셨는데, 바로 거기서 토마토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 광주리에서 계속 토마토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 토마토를 짓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저씨 얼굴은 매우 걱정스럽고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토마토를 줌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제게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하였고, 저도 그분을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뻐요. - 마야 (우간다) -